

인간 탐색의 여정을 시작하며

<크로스오버 1: 인간의 탐색> 첫번째 강의



1

왜 지금 '인간'이 문제인가

“우리는 지금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우리의 기술은 바깥세계를 겨냥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꾸고자 했던 것이다.

불의 사용이나 옷의 발명에서 보듯 우리는 먼저 외부의 요소들로부터

몸을 보호할 방법을 찾았다. 농업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는 식량생산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도시를 지어서 안전을 도모했다.

전화와 비행기가 거리의 벽을 무너뜨렸다.

항생제가 치명적 미생물의 공격을 저지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기술을 바로 우리 자신의 내부로 돌리는 전면적 절차’를 밟고 있다.

(...) 새로운 미개척지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 조엘 가로, 『급진적 진화』 중에서

인지과학(cognitive science)

신생기술(Emerging Technology)의 핵심목표는

더 나은 인간,

인간 조건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redesigning the human condition)
information technology)

나노테크놀

“오늘날처럼 인간에 대해 많이, 그리고 다양하게 알려진 적은 없었다. 또한 오늘날처럼 인간에 대한 지식이 강력하게 그리고 매혹적으로 제시된 때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인간에 대해 무지한 때도 없었고 오늘날처럼 인간이 문젯거리가 된 적도 없었다.”

- 막스 셸러(Mas Scheler), <우주에서 인간의 지위> 중에서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간은 기술을 통해 진정한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가?

인간은 기술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까?

인간이 기술을 만드는 것인가, 기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인가?


테크놀로지의 압도적 영향력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인간 이해의 불충분성의 공백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In Search of Human Nature

인문학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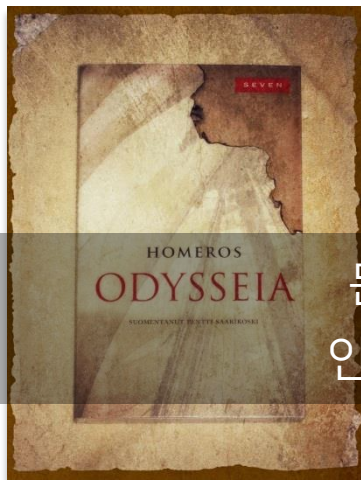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In Search of Human Na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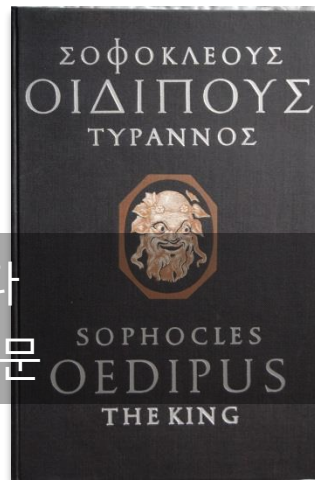
인문학(Humanities)은 인간에 대한 학문이다

Studia humanitas, 인문(人文)



호메로스, 『오디세이아』

문학은 냉혹한 삶의 현실로부터 보다
인간적인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학문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

역사학은 인간의 삶을 통시적으로 조망함으로써
인간이 나아갈 미래의 좌표를 제시하는 학문

“인간이 무엇인지는
오직 역사만이 말해줄 수 있다.”

- 빌헬름 딜타이 (Wilhelm Dilthey)



철학은 일종의 인간학(Anthropology)으로서
인간 자신에 대한 참다운 앎을 추구하는 학문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할 수 있는가?”는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으로 귀결된다.

-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



인문학(Humanities)은 Radical Science다

radix(L)는 뿌리를 의미함. 즉 근본적이면서도 혁신적인 학문이 바로 인문학

“철학을 나무에 비유할 때, 그것의 뿌리는 형이상학
이요, 줄기는 자연학(물리학)이며, 가지들은 의학, 역
학과 같은 학문들이다.”

- 데카르트, 『철학의 원리』

mechanics

medicine

인문학(Humanities)은 Radical Science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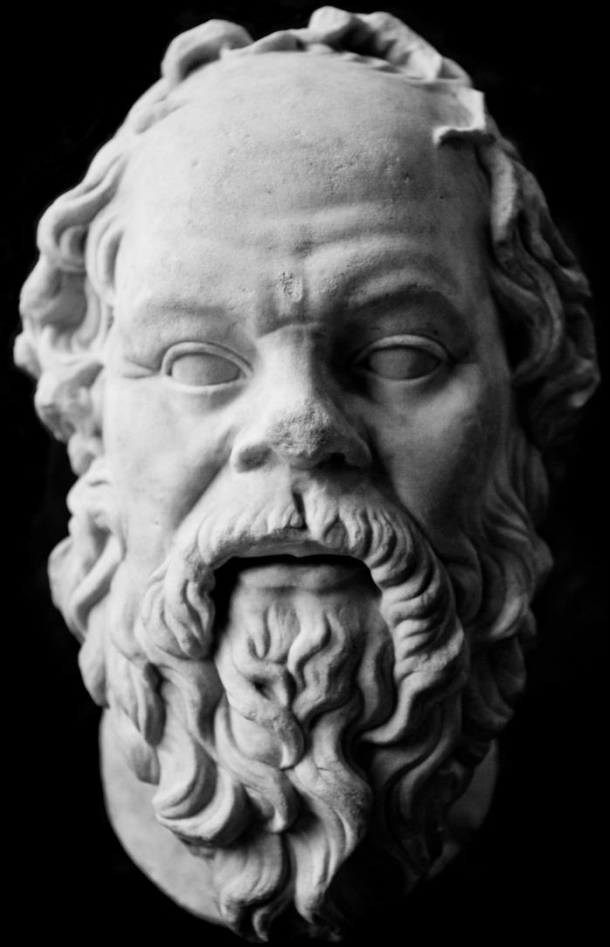
physics

radix(L)는 뿌리를 의미함. 즉 근본적이면서도 혁신적인 학문이 바로 인문학

metaphys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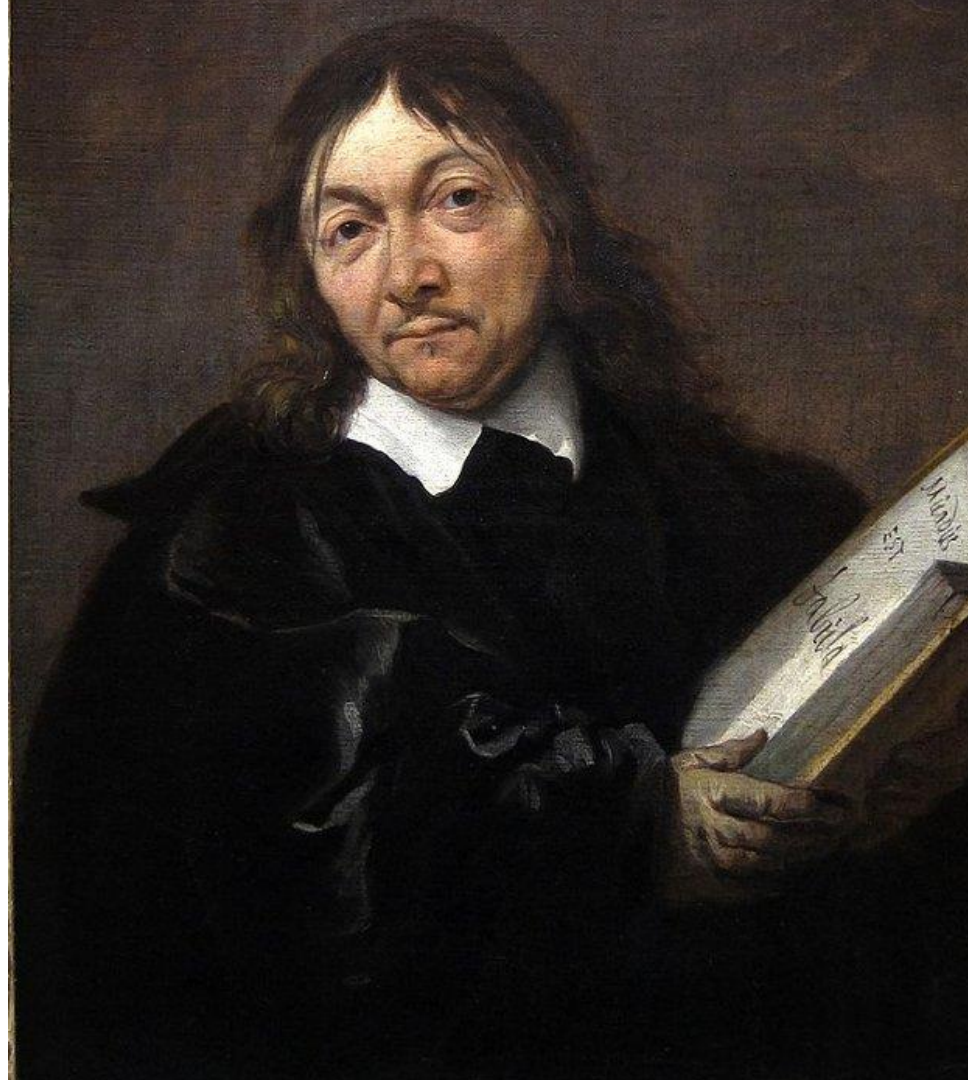
socratic method

-Socrates(BC 469-399)



methodological doubt

-Rene Descartes(1596-1650)



Creative Destruction

- Friedrich Nietzsche(1844-1900)



인문학은 창의성을 주도하는 학문

3

인간의 탐색, 그 여정의 출발점에 서서



“300년 전 기술과 휴머니즘을 떼어놓았을 때,
우리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제는 이 둘을
함께 제자리에 되돌려놓을 때이다. ”

- 마이클 더투조스, 『사이언티픽 아메리카』



무엇을 탐색할 것인가

homo ethicus (윤리적 인간)

homo politicus (정치적 인간)

homo technicus (기술적 인간)

homo historicus (역사적 인간)

homo sentiens (감정적 인간)

homo creator (창조하는 인간)

어떻게 탐색할 것인가



Control (주도)

Challenge (도전)

Confidence(자신감)

Curiosity (호기심)

Context (맥락)

A full-page background image showing a person's silhouette standing on a dark rock in the foreground, looking up at a vast night sky filled with stars and the Milky Way galaxy. The sky transitions from a dark purple at the top to a warm orange glow near the horizon. A white rectangular box is centered in the upper half of the image, containing the title and the word 'End'.

In Search of Human Nature

End